

서원, 문화재를 넘어 세계 유산... '정신위에 지은' 조선 인문학당

"필암서원은 평지에 배치되어 외부에서 내부의 공간 구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필암서원 배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각과 강당이 남쪽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공간적으로 사당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인후 선생이 평소 주창한 예의 공간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누각은 들판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공간적으로는 사당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강당은 마당을 두고 사당으로 대청마루를 열어 존경을 표현한다." (본문 중에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정신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

김희곤 지음



향자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이다. 한국의 서원을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문화유적을 토대로 글쓰기를 하는 김희곤 작가가 펴낸 '정신위에 지은 공간, 한국의 서원'은 장성 필암서원부터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논산 돈암서원 등을 다룬다. 저자의 사유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공간 인문학의 중심이라는 데 닿아 있다. "한국의 서원만큼 빛과 그림자가 선명한 건축도 드물다. 그러나 그 빛은 그림자에 쌓여 있을 때 더욱 빛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제향된 아홉 명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이다. 안향, 이황, 류성룡, 정여창, 이언적, 김굉필, 김인후, 최치원, 김



필암서원은 남쪽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사당을 향해 열린 독특한 구조다. <미술문화 제광>



필암서원의 이름은 맥동마을 입구의 필암바위에서 유래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한 9개 서원 조명 선각자들의 혼 깃든 공간이자 자기자신을 찾는 위기지학 공간

각기 다른 건축구조와 공간 배치로 선현의 삶 공간에 녹여낸 품고 있다. 한국 서원의 다른 특징은 중국 백록동서원을 모델로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그 예로 최초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꼽는다. 백운동서원은 소백산 비로봉 아래서 출발했는데, 저자는 이를 "소백산 계곡으로 안개구름이 내려오는 백운동에서 중국의 주자학이 조선만의 독창적인 성

리학으로 피어난 것"이라 설명한다. 또한 선현의 삶을 공간에 녹여낸 서원은 각기 다른 건축 구조와 공간 배치를 보인다. 경상도 서원은 산자락에 기대 있는데 반해 전라도와 충청도는 산이 끝나고 들이 시작되는 길목에 위치한다. 풍광이 아름답다는 공통점 외에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사상으로 동일하다. 허서 김인후의 학문과 정신이 깃든 필암서원은 독특한 건축 미학을 지닌다. 사당이 강당보다 높아야 하는 전저후고(前低後高)의 원칙을 따를 수 없는 지형 탓에 모든 건물은 사당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대신 반대편은 판벽으로 막아 예를 표하게 했다. 병산서원은 산의 살기를 막기 위해 누각이 병산을 품는 구조로 건립됐고, 옥산서원은 일부러 마당을 건물로 막아 강당의 대청에서 경관을 여는 듯한 효과를 노렸다. 다른 무엇보다 한국의 서원은 자기 자신을 찾는 위기지학(危己之學)의 공간이다. 서원이 기본적인 배치와 구성 원칙을 따르지만 지형 조건과 제향자의 사상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유생들 역시 제향자 정신을 토대로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나려는 무언의 가르침이다. <미술문화 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년이로 편혜영 지음

질문에 질문에 꼬리를 무는 삶의 수수께끼 같은 소설, 과연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의 작가 편혜영이 소설집 '소년이로'를 펴냈다. 저자는 장편 '홀'로 지난 2017년 셉티 픽상을 수상하며 미국문학 시장에서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2013년 '밤이 지나간다' 이후 6년 만에 발간한 저자의 열 번째 책이자 다섯 번째 소설집이다. 이번 소설집에는 '뉴욕'에 게재되면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이끌어낸 '식물예호', 현대문학상 수상작 '소년이로' 등이 실렸다. 편혜영의 소설은 부연 안개가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김용민 '미스 테리아' 편집장은 "삶의 곳곳에 감춰진 고통스러운 함정에 발 하나쯤 빠진 채 우두커니 서 있는 건 그리 큰일도 아니다. 편혜영의 단편들은 함정 옆에 세워진 작은 경고판이다. 이 경고를 읽고 당신만은 무사히 함정을 피해 가시길"이라고 평한다. 이 같은 평처럼 소설 속 인물들은 삶의 어둠을 지워내려 발버둥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특유의 긴장감에 휩싸이며 추리극에 빠져드는 듯한 경험을 한다. 표제작 '소년이로'는 주자의 문집에 수록된 시 소년이로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의 앞부분을 따왔다. '소년은 늙기 쉽지만 학문을 익히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다. 소설은 나이 들어버린 소년, 소설 속에서 어른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가는 묻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문학과지성사 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과학의 구원 강석기 지음

세상을 바꾸는 분야는 많다. 그러나 과학만큼 직접적인 분야도 없다. 의학은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린다. 천문학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지구과학은 자연의 위험한 신호를 포착해 경고한다. 기술 과학은 새로운 재료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오늘의 과학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7년 연속 우수 과학도서로 선정된 '강석기의 과학카페' 시리즈 저자 강석기가 '과학의 구원'을 펴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과학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과학계의 흥미로운 소식을 예세이로 전달한다. 이번 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저자가 기고하고 새로 쓴 글을 묶은 것으로 중요한 이슈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담았다. 저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과학 분야의 글감을 발견한다. 고양이의 혀, 장미꽃 축제, 새로 출시된 TV... 일상의 소재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는 과학계 이슈로 이어지고 새로운 과학 이야기에 갈증을 느끼는 독자들의 갈증을 채워준다. 또한 부록 '과학은 길고 인생은 짧다'에서 스티븐 호킹, 어릴러 르 권, 폴 앤더슨 등 과학계 유명 인사들의 업적과 부고를 다루며 과학은 역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학문'임을 깨닫게 해준다. 무엇보다 저자는 지구와 인류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과학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리라 희망한다.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 등 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희망과 우려 섞인 소식을 소개한다. 책에서 다루는 분야는 건강, 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에 걸쳐 있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쓴 글들은 과학은 어렵고 난해하다는 선입관을 깨뜨린다.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류에게 '과잉'을 선물했지만 또한 인류가 제어할 수 있는 '예측과 경고' 또한 선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엠아이다 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로부터 최영철 지음

10년 동안 투고한 신춘문에, 서른이 넘어가도록 변변한 직업도 없이 단칸방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절망을 담은 시를 썼고, 이제 시 쓰기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투고한 그 해 비로소 당선 소식을 들었다. 지난 198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최영철 시인의 회고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시인으로 활동해 온 그가 시와 시인, 시 쓰기와 시를 안고 살아가는 방식 등 시론(詩論)을 담아 산문집 '시로부터'를 펴냈다. 저자는 고통과 절망, 실패에서 시의 재료를 찾았다고 전하며 이를 자신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여기는 게 시인의 책무라고 주장한다. '열렬하지 않으면 시인이 될 수 없다'는 지론을 펼치며 생의 원동력이었던 시에 대해 탐구하고, 시인의 의무를 고심하면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가 가진 희망을 나눠주고자 한다. 1부와 2부에서 고통과 절망을 시의 바탕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시인에 대한 통찰과 함께 과잉과 포만을 경계하며 도시 문명의 피로와 시의 유용함·쓸모없음 등을 살펴본다. 3부에는 유치환, 백석 등 시인을 찾아 떠난 문학 기행의 기록을 담았다. 저자는 "말라간다 날아간다 흩어진다", "돌돌", "금정산을 보냈다" 등의 시집을 발간해 백석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이형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는 지난 2015년 시인 투표로 부산 대표도시 '원복'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장소설 '어중씨 이야기', 산문집 '동백꽃 붉고 시린 눈물' 등을 펴냈다. <산지니 1만4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리미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리미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